

전북 예술 대전환 절실

'도지사 출마 예정' 김윤덕 의원,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 센터 구축"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21일 "전북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작품전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북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 센터' 구축을 통한 전북 예술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의 문화와 살아 숨 쉬는 예술혼은 전북 예술문화가 가진 강점이다"며 "전북의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고, 예술인의 입장에서 기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예술인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북 예술인 경영지원 활성화 센터'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청년 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아트마켓 사업을 통해 전북예술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처음으로 진출하는 신진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해외 자매도시 청년 네트워크 사업 지원, 발달장애 청년 자립능력 향상, 청년정신건강 비우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정부 지원 이력이 없는 신진 청년 예술가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제공 및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자매도시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촌유학, 농촌 살리기 위한 길'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도교육청 적극 협력해야'

폐교 위기 학교와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 남원2)은 21일 "전북도가 지난 2012년 광역자치체 중 전국 최초로 농촌 유학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년 동안 농촌 유학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전남지역 농촌 유학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에서 농촌 유학을 경험한 학생은 총 199명으로



연평균 40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 1학기 82명, 2학기에 165명이 농촌 유학을 다녀갔으며, 올해는 신청자만 400명이 넘고, 최종적으로 약 300명가량의 학생이 전남지역 농촌 유학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북이 농촌 유학 1번지를 여전히 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예산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6

억 6,000만원이 투입됐지만, 2020년 건립된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비용 8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약 18억6,000만원이 투입됐을 뿐이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김승환 교육감에게는 "전북교육청이 어울리학교 정책 등 농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전체 학령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에 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협력이 그동안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토로하면서 "현재 전북교육청에는 농촌 유학을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호상 기자

"준비된 시장으로서 지역경제 살릴 것"

이학수 전 도의원, 정읍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이학수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8일 정읍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정읍생고을시장 내 다목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시장으로서 반드시 정읍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불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도·농이 고루 발달한 서남권의 중심도시였는데 지구 세를 잃어가고 있는 정읍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8년간의 도의원 경험과 지난 20년간 정치인으로서 쌓아 온 지방·중앙의 탄탄한 인맥 등을 활용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장직에 나서게 되었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인구가 계속 줄어 지방소멸의 대열에 간 것은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이 전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서민경제 정책에 주력하면서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간 정읍의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을 들으면서 '정치의 본질이 민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밝힌 이 전 의원은 "모름지기 시장이 되려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준비한 공약과 관련해서 이 전 의원은 "시민중심 문화·생명 공유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농업과 농촌 ▲경제와 일자리 ▲문화·체육·관광 ▲보건의료와 복지 ▲도시와 교통 ▲환경 ▲보육과 교육 ▲청년·소상공인·자영업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행정 등의 8개 분야 70여 개의 세부사업 계획을 세워 시민과 더불어 정읍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주요공약으로 ▲지역농협 생산품목을 특화하고 계열화하여 농업의 6차산업의 폭넓은 실현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축산분뇨·태양광 발전의 공익형 사업단을 추진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육과 복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원 ▲정읍역과 정읍전을 연결하는 종합개발로 관광객이 믿고 찾는 관광병소와 사업 진행 등을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정읍문화관 건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스마트 팜을 확대하고 치유농장 정책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재미있는 노후 환경 준비 ▲정읍역 환경 개선과 이웃 도시를 연결하는 환승역 설치 ▲공립산후조리원과 아동전문 병원, 기적의 놀이터 설립 등도 소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관련 공약으로는 ▲공공 배달앱 구축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확대, 청년 창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을 약속했고, 깨끗한 행정분야와 관련해서는 ▲시민소통실을 신설하여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정책을 설계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21일 밝혔다.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등록을 마무리 한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본인의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남북 축과 중앙에 해당하는 원도산까지 이미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반드시 실현해 미래로 향하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도시 전주가 정체된 원인을 정치세력파 세대의 고착, 보수화된 관료주의, 특정세력의 나눠먹기식 이익관계 등 세 가지로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완주군 통합을 시작으로 익산까지 도시를 확장해 인구 100만의 강한전주를 만들고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정조직으로 혁신해 부자전주의 기틀을 다질 것이며 ▲능력과 사는 곳은 달라도 시민 누구나 삶의 질이 높은 행복시민의 터가 될 것이라며 대안과 비전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김민영 민주 정책위원장의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김민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 황토현 기념탑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이어 정읍역 터미널 연차시장에서 정읍시장 등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고 생고을시장을 방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어떤 후보를 정읍의 리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읍이 미래로 갈 것인지, 과거로 갈 것인가 결정된다"며 "전국 최하위권에 있던 정읍시정정합을 전국 경영평가 1위의 신진조합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민영이 정읍발전의 유일한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펼쳐보겠다"고 자신하며 "정읍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경제살림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시정정합 18년 재임 동안 품목 조합을 일등 조합으로 발전시켰고, 2013년과 2017년 경영평가 대상 받는 혁신적 성과로 실력과 자질 면에서 이미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애인복지전문활동가 지원 제도화" |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전문활동가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모두가 누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 도시 '전주'로 진화하기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복지전문활동가 인건비 지원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현재 전주시와 장애인단체 간에 사업비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잦아 제대로 된 소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전문활동가 고



용이 시급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단체가 이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에서도 대책 마련 대신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 장애인 관련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점검 조력,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전주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16개로, 인건비 지원 관련 조례는 전무하다.

이에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보다 더 편리하

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전문활동가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숙원인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공감하며 장애인회관을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적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상징물로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회관 계획·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눈높이로 행정을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안전한 도시가 바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편리한 도시인 만큼 아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생활야구인 위한 '효자 제2야구장 신설' 약속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문현답' 일한 '완산체련공원 연계 모악산 명품 등산로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전주 효자 야구장을 찾아 전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전문현답(전주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완산체련공원과 연계한 중앙리 모악산 명품 등산로를 조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생활야구인들을 위한 '효자 제2야구장 신설'을 약속했다.

먼저 우 예비후보는 "반듯한 집인도로, 넓은 주차장,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모악산 대표 상징물 건립 등을 통해 명품 모악산을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의 대표산인 모악산은 행정구역

상 전주 완주, 김제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완주의 경우 모악산도립공원 주차장이 정비돼 있고 로컬푸드매장이 갖춰져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반면 전주 중앙리 모악산 주차장의 경우엔 도로가 좁고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모악산 금산암 덕산 주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산체련공원~중앙리 주차장 도로를 2차선으로 대폭 확충, ▲대단위 한옥호텔 유치, ▲중앙리 일원에 가족형 캠핑장 조성, ▲액티비

티한 ATV(산악오토바이)체험장 유치 등을 통해 완산체련공원과 연계한 모악산을 전주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효자 야구장을 방문해 전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사무국장 이종훈)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청취 후 개선방향 모색에 나서 "생활야구장 신설과 ▲야구장 관리업무 협회위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는 현재 100개의 생활야구팀에 소속된 200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은 효자 스포츠센터 전주야구장 3곳이다.

협회 회원들은 "전주에 야구장이 부족해 타 시·도로 원정경기를 가야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야구장 확충을 요청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2,000여 생활야구인들이 시설부족으로 인해 야구를 제대로 즐기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효자야구장 주차장 부지에 제2야구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또한, "술내, 효자야구장 2곳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자 2구장 신축 외에도 하리교(전미동)와 호동마을(삼천동) 등 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야구장을 확충하겠다"며 "야구장이 없어서 논산이나 신대인 등으로 원정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농업은 장수 경제의 심장"

양성민 장수군수 예비후보 농업·농촌 핵심공약 발표

6.1 장수군수 선거에 뛰어들 양성민 전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살기 좋은 부자 농촌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앞서 일자리 창출, 두 배 소득, 삼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일·이·삼 비전을 토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지원 ▲모두를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확대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 등 5대 핵심과제를 선포한 바 있다.

농업 공약의 주 골자로는 ▲농민공익수당 확대 지급 ▲반값 농기계 실현 ▲보조금 체계 변경 ▲보조금 정보 제공 강화 ▲기능성 고소득 작물 발굴과 시범사업 확대 ▲친환경 농가 지원 확대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 ▲장수경협농민소 운영 등 신규 농업인 지원 확대 ▲장수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 강화 등이다.



대표적으로 농가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을 농민당 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반값 농기계 실현의 경우 농기계 1대당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집행할 필수 단계부터 확대 시행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등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양성민 전 의원은 "농업은 장수 경제의 심장"과 같다"면서 "급변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정을 펼쳐 농업인 누구나 걱정 없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돈 버는 도시, 사람이 물리는 도시" 선언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21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팔복동에 위치한 금강유리를 찾아 자신이 내세운 혁신경영으로 전주를 바꾸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돈 잘 벌고 먹고 살기가 수월한 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며 "전주를 돈 버는 도시, 사람이 물리는 도시"로



기업이 오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